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2021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성과사례집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C · O · N · T · E · N · T · S

I.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_ 04

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_ 05

I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수상작_ 07

1. 잃어버린 퍼즐 조각_ 08
2. 폭 넓은 나의 학습 성장기_ 13
3. 내가 한 선택의 결과_ 17
4. 실패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다_ 21
5. 우리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_ 27
6. 실패를 털고 일어나, 성공을 향해 간다_ 32
7. 학적변동은 내 인생의 전환점_ 36
8. 작은 변화의 나비효과_ 40
9.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다_ 44

발행처 | 대구대학교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발행일 | 2021년 10월

주 소 | 38453)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 화 | 053.850.5050/5854

<http://acc.daegu.ac.kr/academic/main>



I.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

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



I.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

2021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에 관심을 갖고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모전 참가 작품들 모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 고민과 진실함이 가득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작품을 제출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저희 심사위원들조차 감동에 감동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했을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좋은 작품들이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친 자신을 위로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금 잠깐의 멈춤이 실패가 아닌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소장

김보혜

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

2021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가. 공모전 목적

1. 대학 내 학적변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올바른 학적변동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양질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
3. 학생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확산 및 정보 공유



나. 공모전 개요

1. 공 모 명 : 2021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2. 공모 주제 : 학적변동(휴·복학, 부·복수(융복합)전공, 전과, 편입, 재입학) 성공 사례

다.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 심사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과학교육학부	주임교수	김보혜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장
국제관계학과	학과장	이소영	ACE+사업단장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정석연	비호생활관장

- 심사기준

심사기준					
영역	주제 적합성	전달력	완성도	경험성	활용성
배점	20	20	20	20	20
총 배점 : 100점					



I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수상작



제목 Title	잃어버린 퍼즐 조각		수상	최우수상
			학과(부)	재활심리학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4학년

잃어버린 퍼즐 조각

누구에게나 마음속 어딘가 크기에 상관없이 소중히 품어온 꿈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꿈으로 가는 길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어느새 내가 했던 모든 선택에 대한 의심마저 드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저에겐 학창 시절부터 5년간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다치면 병원에 방문해 의사에게 치료받듯이, 미술 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는 목표 단 한 가지가 제가 가장 바라오던 꿈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을 기준으로 어느새 꿈을 꾸기 시작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네요.

학교에 입학하던 2018년 당시, 저는 좋은 성적을 가진 채 떨리는 마음으로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학교에서 보낸 일 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상상해온 것과는 다르게 좀처럼 만족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위해 필수로 지정된 전공 및 교양 강의부터 공부보다는 암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나와주는 학점까지, 제가 꿈꿔오던 것과는 반대로만 흘러가는 듯한 대학 생활에 밤새도록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나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불행인지 행운인지, 어느 날엔가 불현듯 이렇게 자책만 하고 있기에선 어린 날부터 노력해온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스스로가 느끼는 무력감과 열등감을 조금이라도 타파해보고자 전공에 관한 다양한 공부와 의견 교류를 위한 학술 스터디에 꾸준히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장애아동 활동 지원을 하는 중앙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였습니다.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학과 학생회 활동부터 자격증 관련 학술 대회나 연수회에 참가하였고, 방학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부정적인 생각마저도 할 시간이 나지 않을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꿈이라는 열정이 꺼져가고 있음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만 갔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도 내가 부족하고 어딘가 뒤처지

고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취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로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지각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시간을 넘겨 뒤늦게 학교에 도착한 저에게 학과 동기가 조심스럽게 팸플릿 하나를 건네 주어주었습니다. 팸플릿 겉면에는 ‘미술치료 전공’이라는 글씨와 함께 미술치료 전공의 교육과정과 소개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팸플릿을 천천히 읽어 내려간 뒤, 당시의 저는 무슨 용기에서인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복수전공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건네받은 팸플릿 한 장이 저의 꿈 퍼즐에 빠져 있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각 하나를 퍼즐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소망하던 목표가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매번 그래왔듯이 망설이지 않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은 나의 원동력

복수전공 결정 이후로 학교로부터 금지된 기간에 맞춰 복수전공 신청을 한 뒤, 마치 중요한 입시 결과를 보는 것처럼 심사 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신청 승인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는 화면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 학교생활은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복수전공은 갑작스러운 학적 변동이었기에, 졸업 학점이나 수강신청, 과목 이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학사공지를 정독하고, 학기 중이나 심지어 방학 중에도 교내 아카데미 코칭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받으며 졸업 전까지 이수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차근차근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의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원인이 되었던 생활 패턴을 바꿔보고자 교내 생활상담센터에 내원해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그동안 외면했던 마음속 깊은 열등감을 하나둘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던 제가 처음 심리 치료사라는 꿈을 가졌던 그때로 돌아가 마음속에 다시 두근거림을 품었습니다.

교내에 개설된 다양한 미술 이론 및 실기 강의를 수강하며,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해보고, 미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미술 치료사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는 점이 무색하게도 제가 가진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강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었지만, 강의에서 얻은 지식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보거나 전시회를 다녀보는 취미를 만들기도 하고, 강의와 강의를 묶어 융합적으로 글쓰기를 해야 하는 강의 페어링 과제에서도 미술과 심리를 주제로 한 글쓰기를 제출할 만큼 새롭게 접해본 강의들이 힘들지만 동시에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융복합 전공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저와 같은 복수 전공생 동기들을 설득해 함께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며 비대면으로도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방학 중,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실습 기관들의 실습생 거부가 잇따르던 때에도, 학과의 도움을 받아 미술치료 실습생으로서 120시간의 실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치료나 상담, 다양한 심리 지원 장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강의에서 접했던 치료 이론부터 실기 수업에서 다루던 미술이나 놀이 매체들이 다양했고, 실습 기간 동안 받는 전문적인 피드백으로 날이 다르게 저 자신이 성장해감을 느꼈습니다.

실습 이후, 진행해오던 동아리 봉사활동을 전염병 확산 위험이라는 특수 상황에 알맞게 원격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계획하였습니다. 현장 실습을 경험한 인원을 위주로 장애 아동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였고, 전공 지식이나 선배와의 학술 교류가 부족할 후배들을 위한 스터디를 추가로 개설하며 아동과 학부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수전공 시작 전 가졌던,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취급하는 해로운 열등감 대신에 모자란 만큼 채워질 수 있다는 극복적인 열등감은 이렇듯 건강한 열등감으로 새롭게 태어나 제가 다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만을 보던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보기 시작했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빛 그렇게 자유

처음 복수전공을 결정한 뒤 급하게 내린 결정이니만큼,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장 전공 한 개로도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 내가 과연 복수전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살면서 미술이라고는 접해본 적이 없는데, 실기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본 전공에도 실습이 있는데, 내가 240시간 동안 실습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 보며 후회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만 같다는 이상한 용기가 어디에선가 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고도 작은 용기가 불러온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관심이 없던 필수 강의 대신 관심 위주 분야의 전공으로만 구성된 시간표로 학점 평균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진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며 걱정했던 강의에서는 석차 1등을 할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며, 미리 학점 관리를 해둔 덕에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는 원하던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심리에 대한 전공 이론과 새로이 알게 된 미술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한 융합적 글쓰기에서 입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실습으로 얻은 전문 지식을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해당 활동이 국고 지원 사업으로 채택되어 더 많은 아동에게 원격으로 심리지원 키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장애 아동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활동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던 순간에는 이전의 개인적인 성과와는 조금 다른 기쁨과 보람마저도 느껴지며, 그제야 비로소 오랫동안 바라오던 꿈에 한발자국 가까워 진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기들을 불러 모아 진행했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서도 학부 과정 중에 배우기 어려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전공생으로의 역량을 확장시켜나가고,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점 관리 방법이나 교과목 이수 조건들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해가며 각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학교에 오가며 항상 바라만 보았던 정문 출입구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는 ‘사랑, 빛 자유’라는 문구의 뜻을 졸업을 앞둔 이제서야 어렵듯이 알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 사랑이란 꿈을 향해 노력하는 열정 그 자체였고, 빛이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었으며, 자유란 스스로를 괴롭히던 열등감에서 벗어나 되찾은 내면의 자유입니다. 각자에게 사랑과 빛 그리고 자유가 가지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저는 사랑과 빛으로 이렇듯 자유롭게 변화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퍼즐 조각, 용기가 빚어낸 꿈

누군가에게 꼭 맞는 신발이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신발이 저에게 주는 교훈 또한 있지 않을까요? 내 발에 신발이 맞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작은 용기를 내어 한 번쯤은 신발을 신어봐도 괜찮다는 것일요.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저는 학부 과정을 졸업하고 사회 어디에선가 또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숨겨진 열등감이 저를 괴롭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복수전공을 하며 변화했던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보려 합니다.

어느 날 동기가 저에게 건네주던 팸플릿 한 장을 당시에는 그저 다 완성된 퍼즐에 빠진 조각 하나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어쩌면 그 퍼즐 한 조각이 제 꿈을 위한 또 다른 퍼즐의 첫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사랑과 빛 그리고 자유 중에서, 여러분은 ‘자유’라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

를 알고 계시는가요? 소극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자유는 말 그대로 외부적이거나 물리적인 구속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지만, 자유의 참된 의미는 오히려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자기실현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본성과 꿈을 좇아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이 부디 꿈을 위해 용기를 내어, 각자 안에 살아 숨 쉬는 진정한 자유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용기와 결심이 쌓여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이 쌓이다 보면 어떠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는 쌓이고 쌓여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 각자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둘 맞춰나가다 보면 어느덧 바라던 꿈에 기적처럼 가까워진 자신을,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는 자신을 만나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Title	폭 넓은 나의 학습 성장기		수상	우수상
			학과(부)	국어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4학년	

나의 본 전공은 국어교육이다. 학창 시절 내내 국어교사를 희망하여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 예비 교사로서 준비와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왔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나의 역량을 꾸준히 기르고자 1학년 때부터 지역 아동센터에 교육 봉사를 다녔다. 지역 아동센터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있었고 가정환경 또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이었다. 그렇기에 내가 다닌 지역 아동센터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교육 봉사를 하러 간 대학생이었기에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 준비를 보조로서 도와 드리면서 언어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었다. 처음에는 언어치료의 정의도 잘 모르고 단순히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어휘나 문장을 알려주는 한국어 수업인 줄 알았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른 후,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에 뵈 만큼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하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선천적이거나 혹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신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단어조차 발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같이 응원하게 되고 그 학생들의 변화가 기다려지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언어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학교에는 언어치료학과는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가 역사가 깊은 학과이기도 해서 더욱더 복수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주변 선배들의 조언을 구해 보아도 국어교육과에서 언어치료학과를 복수전공 하고 있는 선배들은 찾기 힘들었을 뿐 더러 복수 전공을 하면 남들보다 들어야 하는 학점 수도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어 복수 전공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선배들도 있었다. 나 역시도 복수 전공하는 것 보다 최근 국어중등 임용 티오가 매 해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공만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욱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나 나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다. 이는 내가 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 언어치료학과 복수 전공을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 접해보는 영역의 분야에 대해 공부 할 생각에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며 2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복수전공생으로 학교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복수 전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2학년 1학기는 나의 이상적인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 1학년 때부터 학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공 수업을 들었던 언어치료학과 본전공생들과 달리 나는 사전 배경지식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넓지 않은 간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의 나는 막연함이 크고 그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난 평일 오후에는 교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쉽게 설명되어 있는 언어치료 관련 전공 서적들을 읽어 보곤 하였다. 전공 서적이라고 하여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에 나에게 적합한 수준의 전공 서적을 골라 읽으며 언어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언어치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이전보다는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며 다음 학기를 준비했지만 절망적이게도 2학년 2학기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받아 본 학점들이 내 성적표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본전공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의 적성과 맞지 않는 길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 같아서 후회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걱정을 하다 보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걱정만 하며 안주하기 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하며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매번 뻘한 공부법만 배워서 적용하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게 되고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오던 습관이 있었기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흥미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이렇게 배운 지식들이 어떻게 실제 언어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인지 알기 위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일상 속에서 언어치료가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며 언어치료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게 알고리즘이 잘 발달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언어치료사 분의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 그 분들의 치료 영상을 볼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이 되면서 스스로 동기가 유발되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언어치료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학기에 바라던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한 이래로 가장 높은 성적을 받기도 하였다.

3학년 때는 언어치료학과에서 1년간 진행되는 치료 실습이 있어서 아동들을 내가 직접 치료하면서 예비 언어치료사로서의 자질과 적성에 맞는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치료를 맡게

된 아동은 언어 관련 장애는 없으나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동이었다. 이 아동이 처음 치료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에 지연이 있어 아동의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기에 좋은 예후에 대해 기대를 하시고 더욱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모두 보았기에 나의 책임감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나는 실제 현장에 계시는 언어치료사 분들 보다 지식적, 기능적, 경험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실습생이기에 아는 것 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 그렇기에 치료가 진행되기 전에는 담당 교수님을 찾아뵙어 이번 주에 진행 될 치료 방법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고 치료가 끝이 나면 치료 일지와 보고서를 쓰면서 교수님께 끝없는 검사와 확인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치료를 진행해 나갔었다. 그리고 1주일에 1번씩은 다른 실습생들과 교수님이 모여 세미나 형식으로 각자 아동들에게 적용한 치료 방법과 이전보다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하며 의견을 나누는 케이스 컨퍼런스 시간을 가졌다. 솔직히 치료 한 번을 진행하는 데에 적게는 5일 많게는 2주일 이상이 걸리기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지칠 때가 많았다. 타과들과 비해 상대적으로 실습 기간이 긴 편이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조금 더 힘들게 느끼면서 실습해 임했었던 것 같다. 시험 기간에도 어김없이 케이스 컨퍼런스와 치료 실습은 진행되었기에 언어치료 복수전공을 하여 스스로 고생길을 선택한 나에 대한 원망도 없지는 않았다.

그런 나에게 늘 보란 듯이 매 달마다 언어가 발달이 향상되는 아동들을 보면서 나는 힘을 얻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아동의 언어실력이 급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계획해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했기에 실습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인내심이 길러졌다. 그리고 아동과 함께 치료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 하고자 하다 보니 나의 가치관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다. 치료실습을 통해 얻어진 것들은 치료실습 환경에 나온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아동의 치료를 종결을 하는 날에 진행했던 마지막 검사에서 아동은 또래들과 같은 언어발달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고서는 그동안 고민하고 고생했던 시간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보다 더 아동을 걱정하며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며 기다리셨던 아동의 부모님들께서도 마지막 상담을 할 때 결과를 들으시고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치료사로써의 삶의 건승을 기원해 주시는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꼭 참았다.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고자 늘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기에 눈물이 차올랐던 것 같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고민의 기로에 놓여서 국어교사와 언어치료사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늘 생각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2가지의 학위를 가지며 공부할 수 있었던 사실에 감사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또래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복수전공에 대해 고민하는 멘티들에게 복수전공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많은

멘티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기에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수전공에 대한 고민이다. 선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조언을 할 때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나는 내가 만난 모든 멘티들에게 복수전공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복수전공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응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복수전공을 하면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다른 전공 공부를 겸하면서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준비해야 되기에 집중력에도 한계를 느끼며 남들보다 쉽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기 중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되어 성적이 이전보다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기 중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가질 직업과 진로에 대한 선택과 그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렇기에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민의 기로에 놓이는 것마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많은 대학생들이 복수전공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고민보다는 고라고 말해주며 실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올해 말에 있을 언어재활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현재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지금의 내가 두 가지 기로에 놓여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복수전공을 해봤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생각을 한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인 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제목 Title	내가 한 선택의 결과		수상	우수상
			학과(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주제	휴 · 복학, 전과	학년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입니다. 2017년도에 대구대에 입학한 뒤 2년의 휴학, 복학 그리고 전과까지의 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과 함께 2021년도인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보려 합니다.

처음 저는 부동산학과로 입학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다른 친구들이 진로와 대학을 어느 정도 정해가고 있을 때, 저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요리 등과 같은 취미는 다양하게 있었는데 직업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고3이 되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뒤늦게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겼지만, 실기전형을 볼 준비는커녕 미술학원 한 번 다닌 적이 없었고, 성적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서류를 넣을 만한 곳이 없었으며 대학은 가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성적에 맞춰 부모님이 원하시던 과인 부동산학과에 원서접수를 했고, 합격을 통해 대구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부동산학과에서 신입생 때는 처음 겪는 선배·동기와의 다양한 행사,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부동산에 관심과 흥미가 없었기에 수업도 지루하였고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학기가 됐을 때도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만 가진 채 친해진 동기들과 더 많이 어울리며 지내곤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수업을 듣는데 학년이 올라간 만큼 전공의 난이도도 올라서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기와 과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정말 과에 대한 애정과 흥미가 전혀 없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 2학년까지는 다녀보려 했으나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수 없어서 더 늦기 전에 과를 바꿔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름방학 때쯤 부모님께 과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처음 입을 열었을 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심하게 반대하셨으며 부동산학과로 졸업을 한 뒤, 공인중개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

만 저는 이렇게 흥미가 안 생기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면서까지 도저히 못 다닐 것 같았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한참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할지 아니면 지금 다니는 학교인 대구대 실내건축디자인과로 전과할지 확실히 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 과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휴학 얘기를 꺼냈습니다. 휴학마저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고 마찰은 심해져 갔습니다.

휴학 얘기를 꺼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 휴학 신청 기간이 됐을 때 저는 이미 마음먹고 휴학 신청을 끝낸 상태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는 그렇게 인테리어 관련 과를 가고 싶다면 휴학하고 그 시간 동안 나중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먼저 따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휴학은 제대로 허락을 받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서 자신도 없고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아버지 말을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공인중개사 관련 서적을 구입하고 처음에는 정말 집중하고 필기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단원 이상 넘어갔을 때였을까요? 집중력도 흐려지고 점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결과는 당연하게도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휴학한 김에 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알아본 결과 인테리어디자인 관련 학과가 지방에는 거의 없었으며, 그렇다고 상황상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기는 무리였고 부모님도 원치 않으셔서 다니던 학교에 전과해서 졸업하고 싶다는 제 확고한 의견에 결국 아버지도 부동산은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 잠시 접어두고 제가 하고 싶은 과에 다니다 졸업부터 하는 걸로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과에 관한 기초지식도 쌓고 필요한 학비도 모으기 위해 1년만 할 예정이었던 휴학을 1년 더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로를 결정한 뒤로는 먼저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실내건축기능사 필기부터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손님이 없을 때마다 틈틈이 필기 공부를 하였는데 난생처음 듣는 건축 관련 용어와 내용이었지만 웬지 모르게 재밌었고 더 완벽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나의 길인 것 같은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 공부가 지루하지 않아서 필기시험 날짜에 맞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 복습하며 시험을 친 결과 단번에 합격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의 마음가짐과는 확실히 달랐고,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조금씩 응원해주는 듯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과하기전 기초부터 배우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살고 있던 김해에는 관련 학원이 없어 부산에 있는 학원에 가서 커리큘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관련학과를 졸업할 예정이라면 실내건축기능사보다는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나중에 준비하고 지금은 학교 가기 전 기본기를 다지는 것을 추천해주셔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스케치단계부터 등록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다니는 학원이 낯설었지만, 실내건축기사 실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보면서 언젠가 똑같이 하고 있을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하면서 왕복 2시간가량 걸리는 학원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두 달간의 과정을 끝마쳤고, 다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토캐드(AutoCAD)를 배울 단계였는데 복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것까지는 배우지 못한 채 본격적인 복학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전과가 바로 가능한지 학교에 문의한 결과, 복학과 동시에 바로 전과는 불가능하고 재학생일 때 전과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줘서 어쩔 수 없이 한 학기 동안은 본래 과인 부동산학과인 채로 미리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학점을 채워야 했습니다. 수강신청을 할 때도 타과였기 때문에 전체 재학생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서 신청해야 했고, 들으려 한 수업들은 거의 다 본과학생 인원으로 차 있어서 교수님들께 수강허가 양해를 구한 끝에 겨우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긴 휴학 기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2학년 2학기에 복학하고 듣는 첫 수업이었는데 부동산학과와는 완전히 다른 계열에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실습수업이 대부분이어서 마치 신입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중 개인이 공간 설계부터 구획, 디자인까지 최종으로 완성해야 하는 공간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교수님께서 설명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고 이해하기 힘들었으며 도면을 그리기 위해선 캐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여 막막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프로젝트였고 타과에다가 복학생이었던 저는 당연히 물어볼 동기나 선배도 없어서 최대한 모르는 것은 교수님께 질문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결국 제가 알아서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못하는 프로그램들은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 대신 피피티나 손으로 도면을 완성해가서 컨펌받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진로나 전과

를 결정했다더라면 이런 일 없이 과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왔을 텐데 라며 약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잠깐, 남들보다 늦은 만큼 감수해야 하고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여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한 뒤, 오토캐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학원을 병행하다 보니 과제 할 시간도 빠듯하고 힘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야 진정 대학을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달간의 시간 끝에 기본적인 캐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기말과제를 평가받는 과제전에 손으로 그려냈던 도면을 다시 캐드로 완성한 뒤 최종판넬 발표를 끝냈습니다. 스스로는 다른 학생들의 작품과 비교된다고 느꼈지만, 교수님께서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격려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간 것만으로 만족하며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학기를 끝마친 결과, 과의 분위기나 수업방식, 다룰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고, 전과하기전 겨울방학 동안에는 계속해서 캐드 심화 과정, 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케치업을 배웠고, 추가로 포토샵과 일러스트 자격증까지 독학으로 취득하여 뿌듯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전과 승인을 받아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학생이 되고 나서 3학년 1학기 수업을 듣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온 덕에 새로 배우는 수업의 과제를 아무것도 몰랐던 전 학기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학년과 다름없었기에 같은 수업을 듣는 2, 3학년보다는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과제를 완성해 제출하였고 정말 빠듯했던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이번 여름방학 때 큰 기대 없이 성적 조회를 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전공 4과목과 나머지 교양 1개를 포함한 총 5과목이 모두 A+이 떠 있었습니다. 후에 확인한 학기등수도 1등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몇 분을 병짜있었는지 모릅니다. 입학하고 꿈도 안 껴봤던 성적이었는데 그것도 전과하고 난 뒤 받은 점수가 데 A+이라는 것에 더 놀랐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1등이라는 성적 자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확실히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전과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해 더 노력했으며 좋은 결과는 운 좋게 따라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었고 남은 학기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 후회 없는 선택이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제목 Title	실패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다.		수상	우수상
			학과(부)	국어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2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교육과 2학년 000입니다. 이 수기를 작성할 때 ‘누군가 복수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와 같은 질문을 주제로 그에 대한 답을 지난 학기의 경험 속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에 제가 참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저의 2학년 1학기의 시간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실패일 것입니다만,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제가 어떤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였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사회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해보면서 사회가 저와 적성에 잘 맞다는 생각을 늘 해왔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회라는 과목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친척 분들이나 친구들은 저를 보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며 만류를 하곤 했지만, 저는 저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자평하자면, 마치 ‘불나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과도하리만큼 학점을 얻는 것에 집착하고 신경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 학기에 24학점을 수강할 때는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만큼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독이 되어서일까, ‘그때보다야 힘들기야 하겠는가?’와 같은 논리로 앞으로의 일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제가 복수전공을 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시간표가 너무 단조로워서입니다. 저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채우고 남은 시간에 교양과목을 듣는데, 필수로 채워야 하는 교양 학점은 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교양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양과목은 학점 따기는 쉬웠지만, 뭔가 배우는 보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양은 한정적이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은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발상이 도화선이 되어 다른 과목의 전공을 더 들여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평소 좋아하던 사회라는 과목을 복수전공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과정에서 실패를 맛보았던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큰 범위의 워딩이긴 하지만 이보다 저의 실패요인을 잘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거창하게 운을 띄워두긴 했지만 실상은 인간관계의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학기동안 일반사회교육과의 강의와 수업을 들으며 동기간의 친분을 만들 수 있기를 고대했으나, 친한 동기를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수전공생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이미 굳어진 유대감과 친분은 이후에 들어온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미 무리를 이룬 사람들과 녹아들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술자리나 모임, 하물며 수업까지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판국에 친한 동기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였습니다. 제가 계속 유대감과 동기, 친구의 중요성을 이 글에 피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친분과 유대, 동기의 존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복수전공은 자신의 꿈과 장래를 위하여 자신의 스펙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나, 보다 넓은 학문을 접하고 경험을 무기 삼아 커리어를 쌓으려 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하기에 혼자서 강의를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그 때문에 대책 없이 복수전공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다르게 동기들은 마치 외골수와 같이 오랜 기간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며, 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공에 대해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이미 여러 번 적용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1년의 간극을 메우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동기들에 비해 베이스나 지식 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설명한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가 불가하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교수님에게 바로 질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수님은 학생의 질문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질문에서 학습에 대한 열의와 학문에 대한 관심을 질문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질문은 교수님에게 하기 불편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나?’ 싶은 류의 질문들, 학자의 견해나 해석의 차이로 미묘하게 달라지는 학문의 의미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결과가 나왔다고 한들, 시험의 출제는 전적으로 교수님이 담당할 것이고, 채점 역시 교수님의 생각이나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채점할 것이기 때문에 검색한 결과의 견해를 따르다간 오답을 써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학습을 위한 일종의 ‘러닝메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조별과제가 많은 사범대학의 특성상 친한 동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혹시나 복수전공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2가지의 상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져있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는 자신의 지식과

는 상관없이 학과에서 사용하는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시대’라고 부르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사의 **1블랙스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치 산업혁명과도 같이 이젠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은 공상이나 상상의 일부가 되었고, OT나 MT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의 형성 또한 어렵고,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복수전공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복수전공생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학과지식의 부재입니다. 흔히 ‘다들 같이 배우는 처지인데 뭐가 그리 다르겠는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수강신청을 한다면, 눈을 뜨고 있지만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2학년 1학기를 눈물로 가득한 시간으로 보내며 다시는 이 강의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과의 커리큘럼에 따르기보다는 공강의 여부나 본전공의 전공 시간, 이동거리를 염두에 두고 시간표를 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 통학거리로 인하여 아침시간을 빼고 본전공과 겹치는 시간을 빼고 남는 시간에 복수전공의 과목을 끼워 넣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지도 모릅니다. 복수전공생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지만 이른바 ‘선행과목을 듣지 않으면 뒤의 과목 이해에도 문제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제가 수강한 과목을 예시로 들자면 ‘동물농장 - 정치생활과 권력 - 정치와 사회’의 구성이 가장 보편적인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생활과 권력이라는 강의를 더 먼저 들었기에 앞선 과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물론 선행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고 하여 뒤의 과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목을 수강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듣지 않아도 문제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노베이스, 제로 베이스로 학과의 전공을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들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정보로 복수전공생을 앞서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지식이 아니라면 교수님의 선호 스타일이나, 강조의 의미등 학습과 벗어난 정보라라도 복수전공생을 앞서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수님은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기에 소수인 복수전공생을 신경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학과생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수강생은 이미 이전의 커리큘럼을 따라 와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의 강의내용을 차용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처음엔 ‘분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불평’하였고, 다음으로 ‘수용’하였고, 종국에는 ‘체념’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생을 맞춰주는 교육에 아직은 더 익숙하던 저는 총 4가지의 변화를 거쳐 사실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글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랙스완 :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

1) 학습의 러닝메이트를 만들어라. 2) 선행과목(학과의 커리큘럼)을 확인해라.

3) 학과 지식의 부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흥미로웠던 점은 학과마다 교육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²⁾국어교육과에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육 이론을 배워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또한 국어 능력이 필요한 다양한 직업군(언론 및 출판 계열, 연구자, 사교육 전문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연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교육과에서는 ³⁾일반사회교육과는 중등학교의 유능한 사회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이며, 일반사회교육은 학습자를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 제반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여러 사회문제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 가치와 태도 그리고 기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과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국어 교육은 실용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제의 분량이나 형식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마치 시적허용과 같이 조금은 자유로운 양식과 분량의 과제가 많다면, 일반사회교육과는 비판적인 분석과 탐구를 기반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 분량이 엄격하고 좀 더 딱딱한 문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좋은 레포트'의 예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유로운 양식과 많은 분량으로 과제를 제출하였으나 간략한 내용과 읽기 좋은 보고서와 같은 레포트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꽤 해매기도 했습니다. 과제의 양이 많은데 어느 것은 국어교육과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어느 것은 일반사회교육과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니 조금은 헷갈리고, 버겁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과마다 요구하는 레포트의 형식은 다를 수 있으니 그 과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학과 생활에 임한다면 저처럼 과정에서의 실패를 맛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러한 역경들을 이겨내고 결과에서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방법과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했던 행위를 일종의 공부법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C.A.R.D 공부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는 Capture, A는 Ask, R은 Repeat, D는 Debate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캡처의 C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의 내용을 놓칠 것을 염려하여 모든 필기를 캡처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의의 캡처가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흔히 범하는 실수 내지는 모순된 행위로 인해서입니다. 우리는 학습을 하기 위하여 책에 정리를 해두곤 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학습자들은 필기와 정리에 혈안이 되어 교수님의 말씀보다 노트의 필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막고자 강의의 내용은 캡처를 해두고 강의의 내용을 간략한 단어로 표현하거나 중요한 개념의 정의 등

을 표시해두기만 하고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의 강의를 되풀이하면서 공부하는 추보식 공부법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공부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 캡처해둔 강의 내용으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의 공부 방법은 서술형이나 임용식의 문제 유형을 푸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A입니다. 저는 수업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필기를 해두었다가 수업이 끝나고 난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곤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고 지식을 덧칠해나가는 과정에서 오개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보다 바른 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의 R입니다. 저는 전공책을 10번 넘게 읽거나 말해보며 공부했습니다.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고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중심으로 다시금 정리를 해보거나, 정리한 자료의 내용을 백지에 쓰고 확인하는 등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제가 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10번 읽는 동안 천천히 1번 읽고, 5번 말하고, 3번 써보고, 1번 문제로 만들어 풀어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어려운 개념을 맞이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의의 D입니다. 저는 정치학이란 학문을 책에만 두는 것이 아닌 현실에 적용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문의 바운더리 안에서 색다른 견해를 제시해보기도 하고, 수업의 자료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을 교수님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부족한 지식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4가지의 방법이 부족한 전공지식과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부법과 학습을 통하여 수강생 중 복수전공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캡처하고 질문하며, 반복하고 토의해보면 어느새 낯설었던 이론들이 조금은 친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번 복수전공을 하며 느낀 점이나 성장한 점을 이야기하고 마칠까합니다. 복수전공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회에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국어만을 바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워볼 기회도 없었고 배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색다른 경험과 한계에 부딪혀보는 경험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가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나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시작한 것이 아닌 2학년부터 복수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실패하기 싫고 그래서 적당히 할 만한 것만 골라 수강하던 전과는 다르게 이젠 스스로 실패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저는 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복수전공의 도전은 저에게 실패와 고난을 알려주었고,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줬으며,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패를 인정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을 이번 기회로 얻게 되어 기쁘단 이야기길 하며 글을 마칠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를 마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출처 : <https://www.daegu.ac.kr/page/850#>; 3) 출처 : <https://www.daegu.ac.kr/page/850#>;

가장 많이 하였고, 학기마다 부족한 학습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험이 부족하면 현장체험 학습을 건의하여 실시하는 등 저와 제 친구들이 교육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한 저에게 “너영나영”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의지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목표에 대해 방향하지 않고 옳고게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인 교사를 꿈꾸며 2016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전공 학부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대학에 입학한 저는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해왔던 시간을 보상(?) 받고 싶어 했는지,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은 저에게 젊은 20대 초반에 여한 없이 놀아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었고, 이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남부럽지 않게 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누구보다도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근심 걱정이 없고 매사에 당당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표현하였습니다.

표현은 사실이었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더욱 섬세한 감정들이 오고 갔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때론 저를 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그저 감정의 부산물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저는 2018년 3월 불안장애 및 공황장애를 판정을 군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소화되지 않고 축적이 되어 되려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심정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본인 스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스스로의 믿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단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좋았을 뿐 저를 보살피고 사랑을 해준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 전역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되었음에도 저는 끝까지 현역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거절하였으며, 저와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힘이 되고자, 또래 상담병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대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이고 많은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율과 상하관계가 명확해야 하기에 때로는 강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0대 초반의 청년은 성인이라고 불리지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가는 불완전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군 생활 초반에는 적응이 힘들음을 보이고 본인 감정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어 조금씩 마음의 병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영문화 내 또래 상담병이 존재하며, 또래 상담병은 병영문화 내 어려움이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전우들을 상담해 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흔히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감정의 깊이가 깊고 섬세하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대부분 겪어 본 저는 진심 어린 조언과 공감하는 자세로 많은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타인의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교관 가치관에 더욱 부합하여 상담교사의 적성을 군 생활에 찾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이과생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나'를 재확인하고 사람들의 배려와 인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 아들러]

제가 심리학과 교직 복수 이후의 복학 생활 중 가장 크게 와닿은 교훈입니다.

2021년도 1학기 다소 늦은 나이와 학년에 심리학과 교직 복수를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인과관계가 뚜렷한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답이 명확하게 정해진 문제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과생”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인간의 원초적인 자아, 일상 생활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의 감정, 정신건강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난관이었으며, 인과 관계가 없는 그저 추상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랬던 제가 심리학의 공부가 체계적이고 중요한 학문임을 깨달은 것은 저의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심리학과 수업 경험과 학생회장 경험이었습니다. 심리학과 전공수업 “성격심리학”과 “상담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단순히 착함과 나쁨에 대한 단일화된 생각밖에 없었지만 “성격 심리학” 수업을 수강 한뒤, 세상에 나쁜 성격은 없으며, 다만 부적응을 일으키는 성격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였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자신과 타인, 주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삶보다 풍요롭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을 통하여 분노, 증오, 사랑, 평화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스스로 해보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가장 이 수업에서 인상이 깊었던 과제는 실제 대구대학교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주제였으며, 4명의 내담자와 1명의 상담자로 진행하는 집단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중요하게 경험한 것들을 적어보며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사랑해 주는 시간인 동시 상담자의 상담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도 학과 학생회장에 당선된 저는 두 개의 수업 경험을 학생회 활동에 대입해보며 활동하였습니다. 학생회 임원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존중을 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와 활동에 반감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학과 학생들에게 무턱대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관계를 호전적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귀로 담아듣고 한 발자국 더 뛰면서 학생들의 편의와 권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해 움직이고 사람들의 배려와 인정 속에서 저의 위치를 인식하게 된 저의 기분은 행복과 보람의 연쇄반응을 일으켰고, 시간이 지날수록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의 심리학은 추상적인 과목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適者生存

지금 제가 청년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사회는 적자생존, 생존경쟁의 결과 그 환경에 맞는 것만이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차 쇠퇴, 멸망해 가는 도태의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과거와는 달리 주어진 벽을 어떻게 잘 넘을지 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벽 자체를 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게 여기에 더해진 또 다른 고민입니다. 벽을 넘으면 악어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벽을 찾고 그 벽을 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용기와 희망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다만, 막연하게 남들이 간 길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지 말고, 진정 가치를 걸고 싶은 일인지를 알아보고

고민해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면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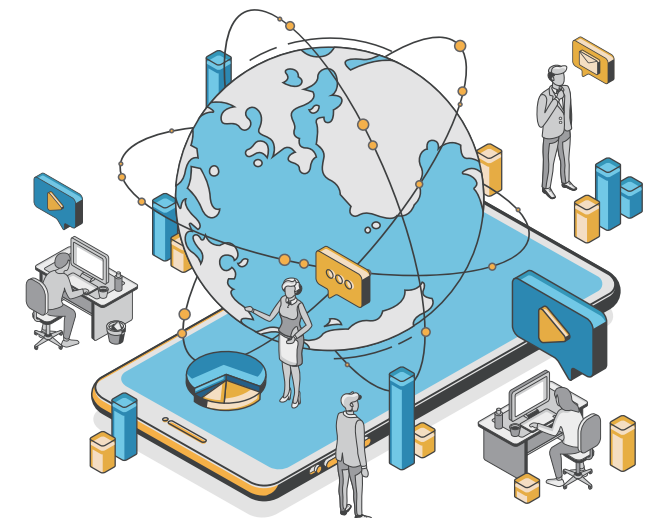
저는 비록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제주의 변방에 태어났고, 남들 대부분이 해보는 사교육 또한 못 받았습니다. 때론 저의 환경을 탓해보기도 하고 못난 저의 능력을 탓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떨어지면 내 인생을 초라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날이 쌓였고, 때론 감정의 늪에서 저 스스로 밀어 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체 생활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배려와 존중을 키워가며 힘든 사람을 도우며 감정이 오작동 하는 사회에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들거나 지칠 때 하나도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기를 배워도 지겹도록 기초 과정을 반복하고, 수학 문제에도 단계가 있는데, 하물며 얽혀 있는 나와 사회의 실타래가 어찌 쉽게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조금씩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나를 사랑해 줍시다. 그러면 어제보다 괜찮은 오늘이, 오늘보다 나아질 내일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저는 대구대학교를 멋지게 졸업한 후 상담교사가 되어 우리의 세대 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드는 길라잡이의 교사가 되어있겠습니다.



제목 Title	실패를 털고 일어나, 성공을 향해 간다		수상	장려상
			학과(부)	회계학과
	주제	재입학, 복수전공	학년	3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19학번 강재환입니다. 저는 이번 학적 변동 성공사례 공모전에서 복수전공 및 재입학에 대한 주제에 부합하여,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 공모전에 참가할 내용은 먼저 타 대학을 다니다가, 대구대학교로 재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및 과정, 두 번째로는 대구대학교 입학 후 회계학과 재학 중, 복수전공을 결심하게 된 계기 및 과정, 세 번째로는 복수전공을 실시하기 전후 변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느낀 점 순으로 공모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재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및 과정

2016년 03월, 저는 호텔리어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채로 경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대학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았는데, 처음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전공 수업 내용 및 대학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대학 생활을 적응하기가 힘들어, 입학한 지 한 학기 만에 그곳에서의 대학 생활에 대한 미련, 열정 등이 사라지게 되어, 일단 먼저, 군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군 입대를 무작정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전산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12개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2016년 09월 대한민국 공군 회계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등학교 시절 취득했던 자격증 중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우연한 기회에, 회계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계병으로 복무하며, 저에게 주어진 재정업무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흥미롭고, 이 일이 저에게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병장 진급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전역 후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복무 중이던 군대에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군 생활을 이어나갈지, 입대 전 재학 중이던 경주대학교로 복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하여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있던 저는, 결국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하여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도, 틈틈이 여러 대학교를 알아보고, 결정하던

중, 우연히 주변 지인이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대구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및 전반적인 대학 생활 등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고, 그렇게 대구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게 되며, 수시 접수기간, 군 시절 적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대학교 회계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구대학교 회계학과로 수시 원서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구대학교 및 경남대학교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남대학교보다는 대구대학교가 전반적인 대학생활 및 전체적인 분위기 등이 저에게 더 잘 맞을 것 같고, 본가인 경남 창원을 떠난, 타지에서도 새로운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대구대학교로 재입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회계학과 재학 중, 관광경영학과 복수전공을 결심하게 된 계기

2019년 03월 대구대학교에 입학 후 첫해, 동아리 및 학생회 등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며, 대구대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웠습니다. 이전 대학교에서의 학교생활과는 달리, 대구대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을 적응하고 나서보니, 슬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또래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하고 싶은 일은 진작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되고 싶은 직업은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관광업계 관련 일을 하고 싶었는데, 스튜어디스, 여행 가이드, 호텔리어 등 여러 가지 관광업계 관련 일을 모두 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어느 한 가지의 직업을 정확히 정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교내에서 항공 객실승무원 및 지상 승무원에 대한 특강이 열린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공 승무원에 대한 꿈 역시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특강을 수강하면 무언가 저에게 이득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 항공 특강을 참여했었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어거너며 알고 있던 정확하지는 않던 항공 관련 지식들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좋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전과 같은 생각이 들며, 큰 자신감이 없이 그저 이전과 같은 생각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학년 시절이 끝나, 2020년 01월, 겨울 방학에 저는 가족끼리 대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티웨이 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수속 절차를 위해 티켓팅 카운터로 갔는데, 수속 업무를 하는 지상 승무원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 안내, 질문에 대한 친절함 답변 등의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에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을 받으며, 6년만의 해외여행에 들뜬 저의 마음에,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동경심, 존경심이 저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 저에게 딱 맞고, 마치 누군가 저에게 너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듯한 메시지를 준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 관광계열 및 항공 특강에서, 제가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에 대한 적성에 부합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단번에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정확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확고해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티웨이 항공

지상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서, 티웨이항공 지상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 중, 우선 관광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통하여, 항공 및 여러 가지 관광 계열 전공들을 공부함으로써, 졸업 후 실무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전문 지식 및 더 깊은 전공 지식들을 가질 수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2학년 1학기 복수 전공 신청 기간에 대구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복수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복수전공을 실시하기 전후 변화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회계학과 본 전공만을 공부하며, 사실 지루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떠한 과목은 적성에 맞지만, 어떠한 과목은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싶고, 수강이 꺼려지는 과목조차도,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수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또, 회계라는 과목 자체가 깐깐하고, 정확하고, 예민 해야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전공으로 인해 어느새 저의 성격마저도 깐깐하고, 예민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광경영학과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서부터 관광경영학 전공을 이수할 때는, 이수하게 되었던 6-7개의 과목에서 단 한 가지도 지루했거나, 흥미가 없거나, 복수 전공을 후회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공 지상 승무원이 된다면, 밝은 웃음, 친절함, 언행 및 자세, 최상의 서비스가 필요로 한데, 그동안 회계로 인해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저의 성격 탓에 이러한 성격들을 다시 고치기 위해,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고, 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간 웃음 연습하기, 배려하고, 봉사하기 등의 저만의 규칙을 정하였고, 실제로 매일 매일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실시하며, 노력 중입니다. 또, 무엇보다 제가 복수 전공을 하게 된 이유이자, 제가 가장 자신 있고,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 항공, 항공을 공부하게 되었던 점에 대해 너무나도 큰 행복함을 느꼈고, 살아오며, 배움에 대해 이렇게까지 큰 기쁨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직전 학기, 3학년 1학기, 관광경영학과 소속 전공 항공 경영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항공 지상 승무원들이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이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취업 전 직접 몸소 겪어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관광계열에 더 수준 있는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었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학우들은 아르바이트를 흔히 하곤 하지만, 저는 이제껏 살아오며, 아르바이트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이번 방학기간에 경남관광기업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관광아카데미 교육 행사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수강생 관리 및 교육 행사 보조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매 교시마다 새로운 강사분들께서 오실 때마다 새로운 이색

적인 관광 창업 및 관광 취업 강의를 해주셨는데, 중간중간, 제가 관광경영학과 전공들을 수강하던 도중 배웠었던 단어들이 강의 중간중간 들리며, 제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새로운 관광 단어 및 트렌드 등을 알게 되며, 이 또한 관광계열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제가 만약 관광경영학과로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알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수 전공을 통해, 단순히 본 전공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학과 전공 역시 함께 병행하니, 저의 지식이 더욱 수준 높아지고,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으로서의 소속감 및 성취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4. 재입학, 복수전공을 하며 느낀점

저는 재입학, 복수 전공 두 가지 모두 다 선택에 대해 후회해 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주변의 지인들도, 가족분들도 역시 저에게 재입학 및 복수 전공에 대해 축하해 주었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대학교 내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의 회계학과 학우들과 SUR+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이 SUR+라는 동아리는 대구대학교 회계학과이거나, 회계학과를 복수 전공 중이거나, 상업교육 교직이수 중이거나, 회계학과에 관심이 많은 누구든 저희에게 복수 전공 및 교직이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인스타그램 DM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주고, 서로 묻고 답하며, 선후배 간의 완만한 교류 및 복수 전공, 교직이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2학년 2학기부터 복수 전공 및 교직이수 중에 있는 저를 포함한 4명의 회계학과 학생들과 동아리를 개설하며 함께하였고, 현재도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 모두 복수 전공이나, 교직이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학우가 없을 정도로 현재의 대학생활에 만족하듯이, 저 또한 재입학을 하였기에 이러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4명의 학우들과 같이 복수 전공 및 교직이수를 선호하고 추구하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며, 선 후배 간의 완만한 교류 및 친분을 통해 건전하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눈치 보지 않고, 2가지씩 혹은 3가지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부분에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졸업하는 순간까지, 졸업하고 나서도, 복수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공모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역시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저 스스로의 대학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학적 변동을 실시하였고, 성공한 부분들,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Title	학적변동은 내 인생의 전환점		수상	장려상
			학과(부)	유아특수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3학년

저는 2018학년도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입학하였습니다. 입학을 하면서 주전공을 공부를 하다가 1학년 2학기에 ‘복수 전공’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배워보고 싶었던 심리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여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 학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복수 전공을 신청하고 나서 주전공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 다채롭게 배워볼 수 있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정말 북받쳐 오르고, 그 기분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가도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만약 떨어진다면 정말 큰 좌절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발표일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제게 주어진 일을 하며 발표일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드디어 복수 전공 신청 결과가 발표되는 날 저는 합격을 하게 되었고, 학적 변동 사항에서 복수 전공 배너에 ‘심리학과 복수 제1전공 이수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합격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었지만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학업 욕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복수 전공을 합격하고, 학창 시절 때부터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던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해 겨울 계절학기를 통해서 심리학과에서 입문으로 배운다는 ‘심리학 개론’이라는 전공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제 주전공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좀 더 편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웠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9년 1학기가 되어서 심리학과와 기본 이수과목을 살펴보다가 ‘상담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친구들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생각이 나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을 좋아했었던 저는 이 과목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상담기술을 배워서 실생활에서도 접목시켜서 사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었던 ‘심리학’이라는 학문 내에서는 새로웠던 분야였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수강한 후 좀 더 다양한 상담 기술을 알게 되었고, 내담자와의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과 인지해야 할 점 등을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바

탕으로 실생활에서 앞으로의 친구들과의 상담을 할 때 접목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군 복무를 위해 군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동안 개인정비 시간을 통해 군 복무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떤 것을 하면 나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좀 더 다양한 것을 공부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심리학 분야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학부시절에서 배운 내용도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었지만 제가 학습자인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건 대학교 공부라는 것은 ‘평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학문을 탐구하면서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복무를 통해서 이러한 빈 공간을 채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과목을 먼저 시작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 주전공이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상담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계획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군대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자발적으로 탐색해보다가 군대에서 자기개발의 여건과 환경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강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인터넷 강의를 바탕으로 제 목적과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 분야 중 하나인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자기개발비용 지원이라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하는 인터넷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자기개발비용을 통해 부담 없이 구매하여 학업 욕구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2시부터 00시까지 ‘독서 연등’이라는 것을 통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좀 더 심도 있는 학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의 이론 내용을 공부하다가 ‘상담’이라는 것은 이론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학문 지식만이 중요시되었다면 사범대학에서는 수업실연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전공수업을 통해 이론지식 습득에만 치중했을 것입니다. 즉, 교사의 역할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교사의 궁극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학부 생활 중에 많은 수업실연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피드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층 더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실제

로 이론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상담에 접목시켜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복무 중에 내가 직접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알아보다가 제가 복무하는 부대 내에 '또래상담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부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또래상담병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습득한 학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를 남에게 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상담을 꺼려 하는 선후임 및 동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그 이후 제 맞후임과 자연스럽게 일상 이야기를 하며 고민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제 맞후임의 고민은 전역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고민을 제게 털어놓아서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만의 극복 방법이었던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들어준 이후 제 맞후임은 상담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이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앞으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고, 자진하여 또래상담병을 하겠다고 한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양한 선후임 및 동기들과 상담을 하면서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저는 개인정비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상담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니 전문상담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직이수'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심리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직 복수 전공'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하고 복학하여 교직 복수 전공과 관련된 공지를 보게 되었는데 선발인원이 소수였기에 간절한 마음 반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제가 합격을 하여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에서 즐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전역하고서도 학과 공부를 즐기면서 관심 가지고 공부한 결과 성적이 수직 상승한 것을 보고 '흥미를 가지고 간절하게 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을 찾아보다가 '청소년 상담사'와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어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학적 변동의 전후 가장 큰 변화는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시작하기를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었던 점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 아래와 같은 과정이 없었다면 변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지 자발적으로 찾고 있는 능동적인 제 모습과 나날이 한 층 더 발전해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인드컨트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보다는 GO'라는 말처럼 시도해보지도 않고, 겁먹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딪혀보고 포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적 변동 중에서도 복학 및 복수 전공을 통해 제 자신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복수 전공을 통해 주전공뿐만 아니라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다른 전공을 이수하면서 지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평소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고 싶었던 과목을 공부하면서 학습태도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경우라면 이해하고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작정 암기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목에 대한 흥미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이해와 흥미 갖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 방법을 통해서 주전공에도 접목한 결과 주전공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말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왕 내가 관심이 있는 학문을 복수전공하여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최선을 다해보자고 마음을 먹어서 그에 맞게 행동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인드컨트롤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었고, 도전을 성취함에서 오는 뿌듯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성취해 나가면서 제 자신이 이전에는 지레 겁먹고 쉽게 포기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성취함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실패했을지라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다시 재도약하는 데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제적인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군 복무 중에 자발적으로 또래상담병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론 습득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직접 선후임 및 동기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 자신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경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적 변동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 많을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잠시 넘어지는 것에 대해 제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닌 다시 재도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를 탐구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목 Title	작은 변화의 나비효과		수상	장려상
			학과(부)	행정학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3학년

작은 변화의 나비효과

2021-1학기 4월에 중순에 공지되는 복수전공 신청 공지를 매우 기다렸습니다. 전년도에 복수전공 신청 공지를 언제 업로드했는지를 확인하면서 21년도 복수전공 신청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학교 측 공지를 기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전공을 신청해 우여곡절 끝에 결국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수전공을 이렇게까지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얘기는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전공을 반드시 하고자 한 저의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입학할 때, 행정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은 정말 대단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멋있고, 존중합니다. 물론 본인의 꿈이 명확하지 않고 진로에 대한 확실함이 없어도 현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고등학교를 재학할 때 느꼈던 점은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본인의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꿈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이과를 선택해서 수능까지 쳤고, 막연하게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고 부모님과 의 기나긴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2016년에 대구대 행정학과를 선택해서

진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대학 진학이 결정됨과 동시에 꿈과 목표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목표조차 사라졌습니다. 약 10년을 막연하게나마 지켜온 저의 작은 꿈이 사라졌을 때 그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 원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으로 입학을 하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놀았고 그렇게 1년이 흘러 2017년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이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의 시간이 병사로 복무하던 저에게는 반갑지 않았지만, 전역한 본인에게는 군대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그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한가지 깨달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저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탓하면 안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여건이 충분했고 부모님의 지원도 충분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 외에 다른 요소로 인해서 꿈을 포기했다는 말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간절했던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도 했을 것이며 그 정도의 노력은 부모님도 제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지지해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막연하게 꿈꿔오던 자동차 관련 직종의 일은 오래가졌던 꿈이라서 이 목표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큰 착각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원하는 꿈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고 스스로 꿈에 대한 확신조차 없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꿈과 목표에 대해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 2019년 1년 전체를 휴학하면서 인생 첫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틈틈이 일도 하면서 천천히 복학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 첫 해외여행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71일 동안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서 점점 더 어떤 자세와 각오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점점 확실하게 되었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행이 길지는 않았지만 짧지도 않았기에 많은 것을 느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느꼈던 것은 영어 회화를 자유롭게 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것을 배우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1년을 휴학했기 때문에 저는 2학년, 저랑 같이 입학했던 여자 동기생은 졸업했거나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남자 동기생은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동기 친구들이 다른 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졸업과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미리 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행정학과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의 사무직, 공무원,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대부분 학생의 선택입니다. 저는 본인 스스로 목표 없이 공무원 준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치열한 고

민을 했습니다. 행정학과의 전공을 살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창 고민하던 중에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017년 입대해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에 입문해서 2019년 휴학 기간 중 조금 더 전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웠고 2020년 복학해서 굉장히 즐겁게 트레이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의 목표를 종합하면 저는 행정학을 살리면서 제가 원하는 전문적인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저는 애매하고 막연하던 저의 목표가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육행정가 또는 전문 체육 지도사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학과 복수전공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복수전공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한 번 생기고 난 후에는 놀랍도록 빠르게 열정이 생겼습니다. 막연하고 애매한 영어 회화 가능한 전문직 종사자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종류가 체육으로 결정되니까 여러 고민이 한 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전문 직종이고, 저의 실력만 갖추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살 수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학과 전공도 살릴 수 있다는 점 모두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복수전공을 준비했습니다.

복수전공을 2021년 1학기에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0년 2학기까지 3학년이 되기 전에 행정학과 전공을 모두 다 듣고 2021년 1학기에 수강하셔서 제출을 통해서 체육과 전공을 들으면서 학기 중에 복수전공 신청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21년 1학기 저의 3학년 1학기부터 체육학과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복수전공 신청을 기다리던 중 복수전공 신청 계획이 공지되었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육학과 복수전공을 신청했을 당시에 실기 시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주일 후에 실기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합격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수전공 신청한 학생이 실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단 1주일뿐이고, 사전에 애초에 복수전공에 관한 공지가 올라왔을 때도 따로 공지가 없었습니다. 시험의 기준 역시 1주일 연습으로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학과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꼭 체육학과 의 복수전공 신청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교무학사부에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해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어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무학사부와 체육학과가 한 번 더 논의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험을 치르도록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진행해서 합격 점수를 받고 체육학과 복수전공을 승인받았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한 진행 상황을 언급한 이유는 학과와 학교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 상황을 언급한 이유는 꿈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남 탓을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방침이 이렇고 상황이 저렇다 같은 핑계를 대면서 문제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학교의 탓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에 나 자신을 한 번 돌아보고 다잡는 계기를 가진 후에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가 이번 복수전공 신청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 역시 잘난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쪽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가짐을 바꾸고 꿈을 찾고 노력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이 힘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이뤄가는 성취감은 매우 큼니다. 누군가가 저의 글을 읽고 단 한 명이라도 생각의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수전공 신청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 복수전공을 신청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복수전공 신청의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복수전공을 신청했고 반드시 복수전공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노력하는 본인을 보면서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21년 1학기에 복수전공 승인받기 전에 체육학과 수업을 수강하면서 느꼈던 점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공부는 그 양이 아무리 힘들고 많을지라도 그 순간은 지칠 수 있어도 다시 또 본인을 다잡고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학이랑 결이 완전히 다른 공부여서 낯설고 기존 체육학과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공부해 오던 학생은 이미 많이 앞선 상황에서 제가 따라가 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등학생 때 했던 공부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제가 공부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표가 생기고 잘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학구열이 생겼습니다. 공부해야 할 과목과 양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해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하기 싫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의 경험을 누군가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잘 쓰지 못한 글이지만, 누군가가 저의 글을 읽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면 매우 기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제목 Title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다.		수상	장려상
			학과(부)	전자전기공학부
	주제	전과	학년	4학년

신입생 시절 나는 수업을 자주 결석하고 노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학생이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넣은 학과였고 결국 성적에 맞춰 물리학과에 합격하여 대구대학교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입학한 첫째 학교의 부실학과들이 폐과 과정을 밟게 되었고 우리 학과 역시 포함되어 나는 선택에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나는 자퇴, 편입, 재수, 전과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중 전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전과를 선택한 이유는 자퇴, 재수는 만약 실패할 경우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좀 더 취업률이 높다고 생각하였던 전자전기공학부,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에 전과를 지원하였다.

그 중 전자전기공학부에 전과할 수 있었고 나 역시 처음에는 새로운 학과에서 새롭게 시작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지속하였던 나태한 생활에 몸이 적응돼버렸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학과에서 1년 뒤쳐진 채 새로운 공부를 하려니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정보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었고 실제로 한 강자가 휴강하는 날 나만 휴강 메시지를 받지 못해 혼자 학교에 왔다가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었다. 그때 당시 무기력감에 빠져들었고 성적조차 낮게 나오자 스스로 핑계를 만들어 금세 포기하였다. 나는 당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교수님에게 질문하며 노력하는 학생들을 비웃으며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에 빠졌었다. 수업 시간 내내 휴대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시험을 치면 백지로 내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오죽하면 교수님 한 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등록금이 아깝지 않냐며 꾸중을 하신 적도 있었다.

그 뒤 이듬해 1학기 때는 그 정도가 심해져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고 출석을 전혀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고 결국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 당시 학사 경고를 받았던 나는 열정을 쏟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무덤덤하였다. 하지만 학사경고를 받은 것을 알게 되신 부모님과의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어서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자퇴할 생각 뿐이었다. 그래서 중간부터는 아예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군대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 나보다 좋은 학교에 간 사람도, 아예 대학교에 가지 않은 사람도 만났었다. 그 중 한양대학교에 진학한 선임과 많이 친했었는데 그 형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느낀 점은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학교를 성실하지 않게 다녔던 과거를 형에게 말했고 그 형은 네가 만약 학교를 자퇴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현실적인 질문을 나에게 하였다. 명쾌하게 답하지 못한 나에게 형은 그냥 학교를 일단마져 다니고 졸업을 하는 것을 추천했고 나도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대학교에 못 가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후임을 보면서 나 스스로 부끄러웠었다.

전역을 4월에 했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해야 했다. 군대 가기 전 2학년 1학기를 학사경고로 끝냈었기 때문에 모두 재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더는 일정을 미루면 지금 결심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2학년 2학기를 먼저 듣고, 다음연도에 1학기를 듣기로 마음먹었다. 학과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이 한가득 있었다.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당장에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나의 담당교수님이 나에게 면담을 제안하셨고 현재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교수님은 내가 학사경고를 과거에 받고 이번 학기에 처음 복학한 것을 알고 나에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하셨고 본인의 연구실에 들어올 것을 제안하셨다. 교수님은 연구실 생활이 자유로운 예전의 대학 생활과는 달리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본인이 정해준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나는 과거의 자유분방했던 생활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나 자신을 환경적으로 억제된 생활을 하게 하고 싶었다. 교수님에 제안에 동의한 나는 연구실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며 수업시간이 아닌 남은 시간은 연구실에서 따로 공부하며 매일 지내게 되었었다.

연구실 형들은 나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었고 학과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본인들이 사용했었던 교재를 무료로 주기도 하였고 실험 수업 때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법을 알려 주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전과 달리 수업을 빼먹는 일도 없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려고 일부러 수업 시작 시간보다 일찍 교실에 도착해 맨 앞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수님이 시키는 잡일도 주저하지 않고 하였다. 처

음에는 출석이라도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었지만 주변에서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성적에도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열정적인 태도에 교수님들도 점점 내 얼굴과 이름을 외우시게 되었다.

어느날 수업을 가는 길에 한 교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학사경고를 받았던 학기 때 수업시간 교실 뒤편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나에게 '수업시간에 매번 뒷자리에서 다른데 집중하고 있는데 한 번 짚은 수업에 집중하는 게 어떨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교수님이셨다. 교수님은 그때의 내 모습을 기억하시고 계셨다. 그 교수님께서 내게 최근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면 수업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씀해주셨다.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도 내용이 너무 어려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 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누군가가 나의 노력을 알아준다는 것이 아주 기뻐졌다.

점점 학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 교수님에게 대학원 진학을 할 생각이 없는지 제안을 듣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내가 소속된 학교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연구실 사람들이 나에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알려주었고 참여하여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학교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이 적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뿐이었다.

복학하기를 만족스럽게 끝내고 다음 학기 목표는 학기 평균 학점을 3.5 이상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 운과 나의 노력이 겹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1학기때 평균 학점 4, 2학기 때 평균 학점 4.43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난생처음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정말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았고 부모님 역시 많이 기뻐해 주셨다.

과거의 나의 경솔했던 행동이 불러왔던 나비효과가 있었다. 학사경고 때문에 재수강한 과목은 우리 학교 정책상 A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이며 A 플러스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나는 학사경고를 받았던 6개 과목을 재수강하게 되었는데 그중 4개 과목이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A로 조정되었고 잘하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성적을 주신 교수님도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셨다. 나 역시 많은 아쉬움이 남았으며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느꼈다.

동아리에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나와 비슷한 시기에 전과를 하였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에게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내가 본 그 친구의 문제점은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점이었다. 나는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이용하였다. 내가 생각한 나의 성공적인 전과를 이끈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내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휴강 날짜를 몰랐던 사소한 것부터 시험과 관련된 정보까지 학과와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나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선택으로 기초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얻게 된 정보를 항상 먼저 공유하였다. 그러면 나를 냉소적으로 대하던 사람도 마음을 열고 나와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

두 번째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였다. 우리 학과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 전과를 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대다수가 적응 문제로 학교생활을 대충하였고 기존에 학과에 있던 학생들은 전과 온 학생들을 자신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대상으로 여겼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쉽게 포기하고 그들과 동조하였겠지만 나는 더는 나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업신여겨 보는 몇몇 학생들을 지켜보며 언젠가 성적으로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세 번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였다. 연구실 생활은 출퇴근이 있는 규칙적인 생활이며 막 군대를 전역한 학생을 다시 구속하게 하는 대다수가 꺼리는 생활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 제약이 없으면 금세 게을러 질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연구실 생활을 선택하였다. 수업시간에 뒷자리에 앉으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휴대폰을 보기 쉽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맨 앞자리에 매번 앉으면서 수업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맨 앞자리는 교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라 수업 시간 중 딴청 피우기가 쉽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집중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학사경고를 받았던 학기의 과목들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복구하여 4년 동안의 평균학점을 3.5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전액장학금 1회, 부분성적장학금 1회를 받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나 정도 되는 성적, 장학금 사례는 평범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내 주변에 전과하고 새로운 학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었다. 나도 한때 자퇴를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힘든 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처럼 극복한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 이러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갖은 노력 끝에 조금이나마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나는 성장하면서 학교, 사회, 군대 등 새로운 사회에 항상 적응하면서 살아왔다. 모든 집단에서 굴러 온 돌은 기존 집단 원들이 거리를 두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 역시 나를 받아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러한 학적변동과 관련된 여러 경험

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근무하는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근무 부서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이 비슷한 예시이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주변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금방 모든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이 나를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나는 곧 졸업하게 될 것이며 사회라는 곳에서 학적변동보다도 더 큰 주변 환경 변화를 매번 느끼며 살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나였다면 금방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의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적변동의 경험을 발판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21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성과사례집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ACE+사업단 아카데미코칭센터
053) 850. 5050 <http://acc.daegu.ac.kr/academic/main>